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8
2021.04.18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4.18

[소비자도노동자도모두민중이다.]

서울강동구의한대단지아파트에서차량높이때문에택배차량의출입을막아서기사들이물건을정문에두고갈수밖에없는상황때문에논란이됐다. 택배기사들과아파트주민간의마찰끝에일부주민들은택배기사들을문자폭탄으로조롱및협박까지했고그결과당장은다시손수레를끌고문앞배송을재개했다. 이참사에필자의 입장을명확히밝히자면무턱대고낮은차고의택배차량을사용하라고강요하거나손수레로문앞배송까지하라는것은노동자의근로환경을전혀배려하지않은무책임한주장이라고본다. 하지만그렇다고바로배려심없는저아파트의입주민대표회에대해비판하기보다는같은상황이지만다르게결말이난훈훈한사례를살펴보려한다.

세종시의한아파트역시거의동일한문제를겪던아파트단지다. 하지만이들은앞서말했던택배기사와아파트주민간의마찰을순조롭게피할수있었다. 바로주민들과택배기사들이서로적극적으로협의하여해결책을냈기때문이다. 구체적인방안을보자면아파트주민들이공동으로분담하여택배배달전동카트를아파트단지내에배치하였고택배기사들은전동카트를활용하여문제없이다른곳처럼문앞배달을할수있도록했다. 이외에도다른방식이지만비슷하게아파트주민들과택배기사들이협의하여해결책을마련한경우가꽤나있다고한다.

필자는보통은이렇게서로협의할수있는게정상이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소비자도결국노동자이고노동자도결국소비자이기때문이다. 민중은흔히해결자들이라칭하는국가나자본주의기업, 정당, 의회와달리조금만더노력해도서로문제에대해공감하고이해할수있다. 이번사례는단순히노동자와소비자간의협력을떠나민중의자치능력을증명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1657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2609_34936.html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4/354984/>

< 가장큰범죄조직의또다른범죄 >

소위‘공권력’은언제나그들이범죄자로부터민중을지킨다고선전하지만실제로그들은언제나민중을해치는가장큰범죄자다. 지난 12 일미네소타주에서는또한명의흑인이경찰의총격으로인해서사망했고 15 일에는지난달말경찰에요구에따라양손을들기까지한 13 살소년을사살한영상이공개되었다.

그간의무수한경찰폭력사건과이전조지플로이드의죽음으로축발된시위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가식조차배우지못한모양이다. 공권력에의한폭력은언제나존재해왔고그것이존재하는한사라지지않을것이다. 민

중과괴리되어민중의해운영되지도, 그들을운영하는주인조차민중의 억압하는주체인조직이어떻게민중을위해행동할수있겠는가.

바쿠닌이말한바와같이사람들이몽둥이로맞고있을때그몽둥이가 “민중의지팡이”라고불린다해서행복해하지는않을듯이이는‘경찰의민주화’등의따위로해결될문제가아닌본연의문제다. 공권력이란기본적으로민중이아닌정부에충성하며지배권력에철저하게상명하복하는조직이며그들을지배하는것은정부는그권위구조와자본주의와의결합으로말미암아필연적으로노동대중을억압하게된다.

국가와그권위질서가파괴되지않는한이러한희생은멈출수없고계속될것이다. 물건너미국땅만이아닌이땅에서도우린그들에의해흘러진너무나많은피를보았다. 우리나라키스트들은공권력이라불리우는모든지배계급의폭압적통제수단에반대하며민중은그들스스로의안전과질서를위해서그모든권력조직을파괴하고그들의손으로직접질서를세워야한다.

[법으로풀리지않을것이다]

비단하단의기사뿐만아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앞으로도 계속해서자본가(위기사에서는병원이지만영리를목적으로하는이들이자본가가아니라고누가말할수있겠는가)는노동자들을속일것이고, 법을정교하게만들면만들수록그허점을찾아내더욱교묘하게노동자들의등을치려들것이다. 이런일들을해결하기위해많은노동단체, 사회단체가출범했다. 하지만지금, 무엇이바뀌었는가. 심지어” 직장갑질 119 에 따르면최근 2 년간 (2019~2020 년) 입사갑질신고가 559 건이뤄졌지만수사기관에통보된건단 1 건 (0.18%) 에 불과했” 고, ” 과태료가 부과된것도 177 건 (31.66%) 에 그쳤고전체신고건수의절반이넘는 371 건 (66.37%) 은별도조치없이행정종결됐다.”

직장갑질 119 는고용노동부의홍보와더불어” 구직자를보호하고입사갑질을예방하기위해법률을개정하고제도를개선해야한다” 고이야기한다. 물론당장할수있는일들을하는것역시 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것이정말근본적으로노동자들의, 구직자들의고충을해결하고문제를없앨수있는방법인가. 앞서이야기한것처럼오히려자본가들은이것들을더욱잘피해갈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더많은시간과노력과돈을들이고는말할것이다. ” 우리는답을찾을것이다. 늘그랬듯이.”

그렇다면근본적으로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가. 그것은바로자본가들이이런꼼수와장난질을칠마음자체를처음부터가지지못하게하는것이다. 그리고그것은’ 이런것을하다가걸리면내이익이 끝장나는구나’ 라는생각에서부터시작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서강력한 처벌조항을신설하자고? 사법부가아직도노동자의편으로보이는가? 돈을받고책임을뉘어써워꼬리자르기를하는일은그런다고사라지지않을

것이고, 설령직접책임자가감옥에들어간다하더라도그가그안에서반성을할리만무하거나그러고나면막대한이익은그대로유지될것이다. 다시한번말하지만, 법률제정, 처벌조항의강화따위는결코이문제의해결책이될수없다.

때문에우리는이렇게권하고싶다. 일터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회사를늘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 더나아가서는회사의운영에직접참여해방향을정할수있는더욱강하고건강한노동조합이필요하다. 노동조합의조합원이란말아직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동료에게이것을쉽게설명해함께하자고권해야하고, 노동조합가입을망설이는노동자라면이방법말고는나의권리를아무도지켜주지않음을다시한번두눈뚫뚫히뜨고인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일하며살기위해일자리를구하는구직자라면구직자의모임을만들어노동조합과연계해내가일하게될지도모르는현장들을더욱일하기좋은환경으로만드는데에함께하고, 노동조합과함께싸워노동조합이단체협약에구직자의모임에서열심히일한이들이우선적으로그일터에서일할수있게끔만들어나가는일이필요할것이다. 내가일하고싶은곳, 일할곳의환경은누군가가대신 좋게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내손으로 좋게만들어야하는것이고, 자본가들의이윤극대라는욕심으로일하기어려운작금의이실업률은우리의투쟁으로, 우리의직접행동으로만깨부술수있다. 아무도, 그누구도대신해주지않는다. 아직도정부가실업률을올리겠다고하는말을믿는순진함을유지하는이는, 없을것이라고믿고싶다.

다시한번적는다. 내가원하는것을내가말하지않으면아무도관심법을써서내생각을이해해주거나, 설령관심법을써서그것을알게되었다하더라도대신해주지않는다. 말하자, 뭉치자, 싸우자.

” ” 정규직이라더니”...과장·허위광고로구직자올리는' 입사갑질'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

[과학기술을다시위대하게]

과학기술의발전은인류의역사에있어, 참으로위대한것이였다. 특정한도이상을인위적으로만들어내면불이불는다느최초의기술이인류가정착생활이라는것을할수있게만들었다는것을생각해보면, 사실상인류가인류로존재할수있는근간이, 과학기술일지도모르겠다. 그리고이는현대사회의성립에도마찬가지였다. 자동기관의등장이야말로노동계급이성립한근거였다. 화약무기의등장이, 육체적으로강건한중장기병열명만있어도인민대중의반란을진압할수있던시대에서, 혁명의시대가열리게된계기였다.

하지만어느순간부터, 과학기술은위대하지않은양여겨지는듯하다. 미합중국대통령은코로나-19 팬데믹에서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약을주사할것을권장한다. 백신은효과가없고, 인간을나약하게만드니

백신의접종을거부하는자들이차고넘쳐난다. 수천년간유전자통제로만들어진작물을먹어온사람들이 GMO 작물은인간에게위험하다고주장하고, 화학물질의결합속에서살아가면서도화학조미료는자연스럽지않으니건강하지않다고말한다. 과학기술의존재자체가생태계를파괴하고있으니, 우리는기술문명을파괴하고원시사회로돌아가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 말을말자.

어쩌다이렇게되었나, 를생각해보면, 이모든것이결국과학기술때문이었다. “충분히발달한과학은마법과구분할수없”기에, 대중들은더이상과학을이해할수없다. 솔직히핵융합발전과핵분열발전의차이를구분하기위해, 원자공학전공서적을읽는사람이몇이나되겠는가. 그저‘핵’발전’이라니, 체르노빌을떠올리게되는것아닌가. 바쿠니언이말하였듯, 전문지식을가진자들에게는, 언제나자연스러운권위가주어진다. 그리고그권위는, 그전문지식이삶을나아지게만들기에, 인민대중이부여한것이었다. 하지만, 과학은마법이되었고, 마법사들은자신의마법을이해시키지못했다. 그렇다면그들의권위가무엇을기반으로존재할수있겠는가.

그렇지만, 과학기술은위대해야한다. 누가뭐라고말해도, 과학기술이가져온농업생산력의증대가아니었다면, 우리는결코멕시코스트랩을벗어나지못했다. 기아로죽어가는이들을여전히보아야만했다. 누가뭐라고말해도, 불을피우기위하여산을민둥산으로만들어가며나무를베는것보다는, 석탄을떼고, 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것이더생태친화적인것은부정할수없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은, 결국다시금인민대중을설득해내야한다. 그들의언어로, 그들의전문용어로, 그들만의기술을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 인민대중의언어로, 인민대중에게왜스스로가필요한지를설명해내야한다. 그렇게다시금과학기술이, 스스로의권위를승인받고, 인민대중이통제하는인민의것이될때에야, 과학기술이인류의삶속에서, 다시금위대해질수있을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9822?sid=102>